



대행님

독자님들의 질문을 받습니다. 불법을 수행하시는 중에 의문이 생기거나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서신이나 팩스 또는 PC통신으로 보내 주십시오. 조계종 한마음선원의 대행스님께 여쭙어 응답해 드립니다. 삶의 고뇌에 대해서도 상담해 드립니다. <글책임: 편집자>

●보발곳: 우 110-170 서울시 중로구 견지동 110-33 현대불교신문사 '길을 묻는 이에게' 담당자 앞 ●FAX: (02)737-0697/8 ●PC통신: 인터넷부디피아 http://www.buddhapia.com/mem/ha nmaum

# 남이 떠준 샘물 목한번 축이면 그뿐

## 빛과 생활고에 시달립니다

93년에 남편과 사별했습니다. 시어머니와 두 남매의 어머니로서 너무 힘이 듭니다. 여지껏 부모 형제 뒷바라지하다 막상 제가 이렇게 되고 보니 어느 누구 말 한 마디 감싸 주는 이 없고 형제들은 그저 못마땅해 하고... 별 재산 없이 어쩔 수가 없어 남의 논이천 땅을 얻어 농사를 짓는데 그것도 곡식으로 세를 주고 약값 인건비 빼며는 별로 남는 것도 없습니다. 하지 않을래야 안 할 수도 없습니다. 애들이 자라니까, 시동생이 사고 저질러 그 당시 이천만 원 값이었는데 올해는 700만 원 해달라, 시어머니는 천만 원짜리 방 한 칸 얻어 주라는 등 요구를 하고 친정 형제는 축협, 농협에 몇 천만원씩 대출을 해달라고 짜나 조르느라 해 주었는데 시국이 이렇다 보니 그만 원금도 이지도 잘 주지 않고 있습니다.

스님! 저는 전생에 무슨 죄를 이렇게 많이 지어 이런 고통을 당합니까. 모두가 다 나의 탓이라 생각하면 마음이 조금 편합니다만 이제 큰스님의 법문을 듣고 마음을 비우고 항상 관합니다. 나의 뿌리 주인공에 항상 관합니다. '당신만이 해결할 수 있으니 당신은 할 수 있잖아' 이렇게 관합니다.

얼마 전에는 너무도 답답하고 해서 '주인공 내가 돈을 벌어야 자식들 공부도 시키고 하지 않겠나. 어서 취직이 되어 돈을 벌게 어떻게 한 번 해 봐.' 이렇게 관하고 던져 버렸어요. 그런데 한 달 쯤 되었을 때 집 가까운 곳에 취직이 되었는데 시간도 내가 바라는 대로 되었어요. 목요일날은 5시에 퇴근하면 6시에 선원에 공부하러 갑니다. 대구 지원입니다. 얼마나 좋은지 주인공 감사합니다. 몇 번이고 되풀이했습니다.

스님! 제가 십오 년 전에 여기 가까운 곳에 도사님이라는 분이 계시게 정말로 진실하게 믿어 왔습니다. 항상 잘 되게 해 달라고 빌었습니다. 옛 인연을 이어서 새 인연을 만났는데 어떻게 해야 할지 궁금합니다.

여기 도사님은 물 떠놓고 부적을 붙여 놓고 부적에는 별이 그려져 있고 천상도술이라는 글자를 손수 써서 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때는 아침 저녁으로 두 손 모아 빌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선원에 공부 너무 많이 가깝다 한 번씩 하지도 스님, 여기 도사님 관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리고 형제들 빌려 준 돈을 돈을 팔아 갚으려 합니다. 재산이라야 논 145평 밭 300평 집 143평입니다. 돈에 신경쓰지 않고 싶습니다.

먹고 살기도 힘이 드는데 한번씩 이자랑 나오니까 너무 괴롭습니다.

딱하고 어려운 처지는 잘 알겠습니디만 누가 대신 해 줄 수 없다는 걸 아실테지요. 남이 떠준 샘물은 목한번 축이면 그뿐 해결책이 되지 못합니다. 스스로 샘물이 솟게 하세요. 열심히 놓고 관하는 공부를 하신다니 더욱 정진하시기 바랍니다. 그야말로 물에서 피가 배어나온다는 말처럼 지극한 마음으로

믿는다고 하면서도  
행과 말과 뜻이  
진실하지 못하고  
밖으로 꼬달려서  
깨우치지 못하죠

하세요. 거들 말하지만 제 아무리 세상을 떠들썩하게 한다는 도사라도 대신해 줄 수 없습니다. 더구나 타력이라니요. 한눈 팔지 마시고 배운대로 열심히 해보시기 바랍니다.

## 잠잘 때 이를 가는 습관 있어요

스님! 평소 현대불교지원을 통하여 스님의 자비로우신 지혜 법문을 접할 때마다 깊은 감명과 감사를 느낍니다. 상담드릴 내용은 부끄러운 일입니다만 고뇌스러워 털어 놓습니다.

저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26세 되는 한 자식이 잠자는 도중에 수년간 계속 이를 갈아 나쁜 버릇을 고치려고 제 나름대로 뺨을 치기도, 마음 충고도 합니다만 도저히 고쳐지지 않아 마음이 괴롭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나쁜 버릇을 고칠 수 있는지를 가르침 청하오니 하교하여 주시기 간절히 바랍니다.

당사자에게 놓고 관하는 법을 가르쳐 주세요. 나이가 스물여섯이나 되었다니 본인 스스로 얼마든지 해결할



그림 · 최주현

## 놓고 맡기는 공부 내가 죽어 '나' 만나는 길 '나' 라는 애착 없으면 번뇌망상도 없어요

수 있을 겁니다. 언제까지 아버지가 그런 문제까지 해결해야 한다고 하시렵니까?

## 요즘 관 공부가 잘되지 않아요

스님, 저는 1년 전부터 한마음선원과 인연이 되어 지금까지 정진하고 있습니다.

이제껏 열심히 관하고 잘 해결이 된다 생각이 들고 같이 하는 도반들도 많이 좋아졌다고들 얘기를 하곤 했습니다. 그런데 요즘 수련회를 갔다온 뒤로는 그동안 생각지도 못했던 저의 마음의 어려움이 새로이 생겨 어떻게 해야 할지 마음이 보이지 않고 더욱더 사립만나기조차 어려워지고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관하는 걸 잘못해온 건 아닌지

찌는 방식으로 제작됩니다. 법공양페이지는 약간의 실비부담만으로 중당 또는 전국 어느 사찰이라도 이용 가능

마음으로 관하지 않고 머리로 지푸 생각한 건 아닌지 큰스님 도움 부탁드립니다.

마음공부를 하다 보면 사람에게 따라는 생전에 보도 듣도 못한 경계에 부딪치는 수도 있고 때로는 갑자기 혼란스러워서 공부 길이 더욱 멀어지는 것같은 경험들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더라도 그건 다 내 공부의 재료가 지 두려워하거나 당황할 일이 아닙니다. 대나무가 자랄 때 중간 중간에 매듭이 생기는 것과 같다고 해도 되겠지요. 아무튼 그럴수록 공부에 더 정진해야 합니다.

평소에는 잘 놓고 관하다가도 좀 색다른 경계에 부딪치면 흔들리는 경우들이 있는데 다시 말하지만 그것은 내 공부를 성숙시키는 기회이니 그런 줄 아시고 열심히 놓고 관해 보시기 바랍니다.

## '초발심 변정각'의 뜻

초발심이 곧 바른 깨달음이란 말이 있습니다. 제 자신도 삼보에 귀의하기로 마음 먹은 지 오래입니다만 아직도 경키르기만 합니다. 그런데 초발심의 경키를 어찌 바른 깨달음이라 할 수 있는지요?

3천년 전이나 3천년 후나, 오늘날 것입니다. 마음은 체가 없어서 붙잡을 수도 없고 빛깔도 없습니다. 우리가 진실히 믿고 놓는 작업을 할 때, 그리고 구하고 물려서지 않을 때 그것이 바로 자기가 아닌 자기를 만나는 소식을 얻을 수 있는 것이고, 한생각이 바로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도 얘기한 것과 같이 믿는다고 하면서도 행과 말이 진실하지 못하고

밖으로 꼬달리기 때문에 초발심에 깨우치지 못하는 것이죠. 10년이 지났든, 20년이 지났든, 하루가 지났든, 1초가 지났든 간에 돌이 아니기 때문에 초발심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깨달음은 한 찰나니까요. 그러기에 우리가 말과 행과 뜻과 더불어 진실하게 물려서지 않고 믿고 놓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10년이 갔다 해도 깨달음에 의해서는 1초와 맞닿습니다. 그러나 초발심에 닿았습니다. 행과 말과 뜻이 함께 결부되어야 하는 것이죠. 컵 하나를 만들어지는 데에도 재료가 한가지라도 빠지면 안돼요. 여러 가지의 재료가 결부되기 때문에 컵이라는 이름으로 생산이 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지수화공이 한 데 합쳐져서 컵이 나오는 것입니다. 지수화공을 알지 못한다면, 흙과 물을 개어서 바람에 말리고 불에 굽는 과정을 생각하면 이해가 갈 것입니다. 그렇게 인연에 따라 결부되어 작용을 하기 때문에 컵 하나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나 컵 하나도 그냥 무심하게 볼 게 아니라, 우주의 개공이 바로 거기에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컵으로 나와서 만이 아니라, 그 컵에 물을 담아서 먹어야 비로소 컵이라는 빛이 나는 것이죠. 담아 먹을 수 없다면 아무 짝에도 쓸모가 없으니 빛이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바로 그 안에 우주개공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 내가 사라진다는 생각 두려워

스님의 책을 처음 접하게 된지 10년 정도 되었습니다. 그런데 얼마전 저는 무척 힘든 일을 경험했습니다. 전 제가 마치 사라질 것같은 두려움이 들었습니다. 너무 불안해서 아무 것도 할 수가 없을 정도였습니다. 지금 전 마치 원점으로 되돌아온 것 같습니다. 전 제 주인공을 믿지 못했습니다. 스님, 믿음을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공부를 하려면 한번 묵숨 때여놓고 해보시지요.

우리가 한철 인생을 사는 것은 언젠가 도 깨워졌지만 배우가 배역을 받아가지고 나와서 무대에 올라가 연극을 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다 맡겨진 배역이 끝나면 또 새롭게 배역을 받게끔 되어 있는데 무엇이 두려웠습니까? 번뇌망상이라는 것도 '나'라는 그 애착 때문이지 그게 없다면 어찌 번뇌가 망상이다 하겠습니까?

14면으로 계속

하며 개인 불자의 경우는 특정 중당 또는 사찰을 지정하여 제작을 의뢰할 수 있습니다.

## 생활속의 불교 187

# 보증보험까지 붙어있는 수만배의 흑자계산법

"부처님의 가르침은 중생으로 하여금 바르고 고통 없는 경계에 들어가게 하는 것이다. 부처님의 법은 결코 효력이 상실되는 일이 없다. 우려내고 우려내도 끝없이 진한 국물이 나온다. 일체 중생이 배불리 먹고 나서도 부족함이 없다."

불법을 배우고 실천하는 길은 어렵지 않다. 세간의 여러 길과는 달라서 불법공부는 시작하는 초기 단계에서부터 즐거움이 따르기 때문이다. 그 점에 대해 부처님은 분명히 약속을 하셨다. '이 법은 누구나 와서 보고 실천할 수 있는 법이요, 처음도 중간도 나중도 좋은 법이다.'라고 하셨다. 시작부터 좋다면 어떤 일든 지루하다거나 어렵게 느껴질 리가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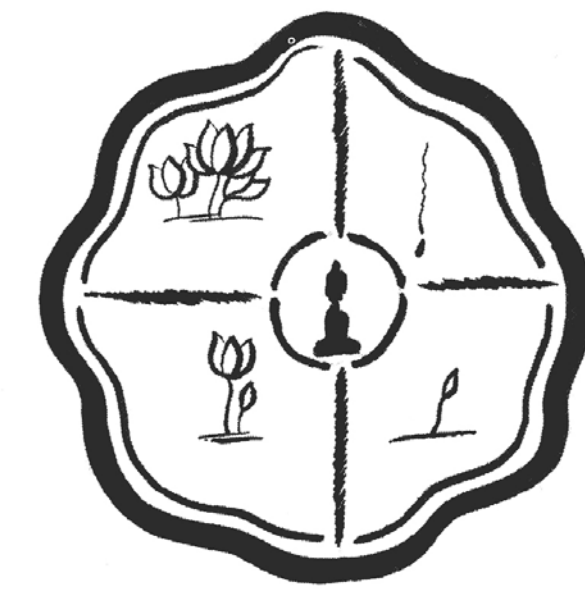
농부는 가을걷이만을 즐겁다고 하지 않는다. 그는 봄에 씨뿌리는 일에서 즐거움을 느끼고 여름에 물 주고 비로 주는 일에서 키우는 재미를 맛본다. 그가 오직 가을걷이만을 목표로 삼는다면 그의 봄·여름은 지루하고 험겨운 시간에 불과할 것이다. 그러나

경험 많은 농부라면 철따라서 흘리는 땀이 고통이 아니라 즐거움일 때 가을걷이가 더욱 풍성하고 보람도 크다는 것을 안다. 그에겐 농사란 처음도 중간도 나중도 즐거움 그것이 된다. 그리고 그는 자연의 이치가 곳곳에서 그런 즐거움을 준비해 놓고 있다는 사실도 안다.

한 알의 이삭이 땅에 떨어져 썩어 트면 수백의 열매가 맺힌다. 자연의 계산법은 한결같이 수백 곱질의 셈법이다. 하나를 심어 다만 하나를 얻는 법은 없다.

그러나 부처님의 계산법은 그보다 더욱 엄격하다. 가령 '이 경의 사구계 하나라도 수지독송한다면 그 공덕이란 철보를 수미산만큼 쌓아놓는 것보다 더 크다.'고 한다. 배수로 따진다면 얼마쯤 될지 가능하기조차 어렵다. 아마 이 세상 어디를 가 보아도 이 같은 흑자 계산법은 없을 것이다.

다만 사구계 한구절을 소중히 간직한다거나 남에게 일러주는 노력만으로도 몇 생애 걸쳐 쓰고 써도 다 못 쓸 만큼의 보화보다 큰 공덕이 있다고 하니...



사람들 사이의 계산법엔 아주 드물게 '되로 주고 말로 받거나' 말 한 마디에 천량 빛을 갚는 수도 있다. 자연의 계산법에선 어김없이 '한 알을 주고 수백 수천 알'을 받게 되어 있다. 그러나 부처님 법에선 '헤아리기조차 어려운 흑자계산'이 가능하다. 아니 가능한 게 아니라 반드시 그렇다. 그리고 그런 흑자계산에 부처님이 보증을 서고 있다. 재세시에만 보증을 서신게 아니라 세세생생에 보증을 선 것이다.

우리는 짧은 계산에 사로잡혀 그 어마어마한 흑자계산법, 그것도 단단한 보증보험이 첨부된 계산법을 보지 못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누가 불법공부를 권할라치면 '너무 어려워서'라거나 '먹고 살기가 당장 급한데'라며 외면하는 경우도 많다. 그러나 따져보자. 세상 일치고 쉽게, 절로 되는 일이 있단가. 불법공부가 어렵다면 세상 일은 쉽단 말인가. 쉽다면 왜 삶이 이따지도 힘들어야 하는가. 당장 살기가 바빠서 공부할 겨를이 없다면 어디 되돌아 보자. 그렇게 바

빠사는데 삶은 왜 이렇듯 쪼들려야만 하는가. 또 그렇듯 바쁜 상황이라면 왜 가장 소득 높은 투자를 외면하고 소득 낮은 투자를 고집해야 하는가.

처음부터 좋은 투자, 과실을 이루다 헤아릴 수 없는 투자, 세세생생에 과실을 누릴 수 있는 투자, 그런 투자가 '여기 있다!'라고 누가 광고를 한다면 서로 앞을 다투느라 아마도 야수라장이 될 것이다. 그런데 진작에 부처님께서 그렇게 광고를 하셨고 거기 보증을 붙여놓으셨다. '누구라도 좋다.'고 하셨다. 어쩌면 그게 실수 아닌 실수(?)였을까. 선착순이라고 하셨더라면 아마도...

"불법공부를 하게되면 위로는 육신을 주신 은혜를 갚게 되고 아래로는 인과법으로 만난 악업·선업들을 다 제도하여 보살로 화하게 하고, 자식들에게는 뿌리를 북돋우니 줄기와 잎이 싱싱하게 대대손손 번창케 할 수 있다."

협찬: 이창호